올해 딱 1편…한국 공포영화가 사라졌다

'여고괴담' 이후 20년 동안 연평균 4.9편
내달 장산범 개봉…사회적 분위기 등 주효

공포영화는 한국 영화계 희귀 장르다. 1998년 '여고괴담'이 큰 성공을 거두며 주목받았지만, 이후 올해까지 20년 동안 연평균 4.9편(총 98편)이 만들어졌을 뿐이다. 2006년 10편이 제작된 후, 가장 적은 작품이 개봉한 해가 2001년(2편)이다.

이후 공포영화는 힘을 못쓰고 있다. 올해 개봉한 한국 공포영화는 단 한 작품 뿐이다. 이마저도 독립영화다. 허정 감독의 '장산범'이 다음 달 개봉을 앞두고 있을 뿐 더이상의 국내 공포영화는 없다. 이대로라면 올해는 2001년 이후 가장 적은 한국 공포영화가 개봉한 해로 기록될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영화시장에서 공포영화는 명맥이 완전히 끊길 위기다. 편수는 많지 않았지만, 매년 1편 이상의 히트작을 내놓으며 최소한의 존재감을 유지했었다. 그러나 2011년 이후 개봉한 한국 공포영화 중 그 해 박스오피스 50위권에 이름을 올린 작품은 단 두 편(2013년 '더 웹툰:살인예고' 120만명 50위, 2015년 '검은 사제들' 11위 544만명) 뿐이다(2004~2016년 박스오피스 50위 내 공포영화 12편).

◇ 한국 공포영화 짧았던 전성기

한국 공포영화의 전성기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다. '여고괴담'이 문을 연 이 시대는 한때 흥행과 작품성 모든 측면에서 성공적이었다. 1999년 나온 김태용·민규동 감독이 공동 연출한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는 한국 공포영화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걸작이다. 2003년 개봉한 김지운 감독의 '장화, 홍련' 또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04년은 박스오피스 50위권 내에 네 편의 공포영화가 이름을 올린 해이기도 하다('귀신이 산다' '시실리 2km' '알포인트' '분신사바').

우리나라 공포영화는 내리막길을 걸은 건 2005년부터다. 그해 나온 공포영화 중 '분홍신'(33위, 107만명)만 흥행에 성공했고, 이듬해에는 가장 많은 공포영화가 개봉했음에도 단 한 편도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다. 이후 '극락도 살인사건'(2007년, 17위, 207만명), '검은 집'(2007년, 32위, 132만명), '차우'(2009년, 26위, 177만명), '이끼'(2009년, 7위, 335만명) 정도가 흥행에 성공했을 뿐이다.

◇ 공포영화는 돈이 안 된다

전문가들은 우리 공포영화의 하락세를 1000만 영화 탄생의 그림자로 본다. 2003년 '실미도'가 1000만 관객을 최초로 달성하면서 흥행만을 목표로 한 영화들이 우후죽순 제작됐고, 공포·멜로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흥행 폭발력이 약한 작품들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분석이다. 1000만 영화는 이어 스크린 독점 문제를 불러오며 한국영화의 장르 편중 현상을 가속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영화 제작사 대표는 한국 공포영화가 현재 최악의 위기에 빠진 이유에 대해, "아주 명쾌하다. 돈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유명 배우들 모아서 한 작품에 몰아넣고 흥행시키는 게 대세 아닌가. 공포영화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신인급 감독·배우들의 영역이다. 다들 영화 만들어서 돈 벌고 싶어 하는데, 요즘 어떤 감독이 어떤 제작자가 어떤 투자사가 신인들 데리고 공포영화 만들려고 하겠나"라고 말했다.

결과는 악순환이다. 공포영화 시나리오 편수가 줄어드니까 좋은 작품이 나올 가능성이 줄어들고, 설령 제작된다고 해도 완성도가 떨어지다 보니 관객이 더 공포영화를 외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 현실이 더 공포스러운데

공포영화의 부진을 사회적 분위기를 통해 읽어내는 시선도 있다. 현실 사회가 주는 실제 공포가 영화가 만들어낸 가상 공포를 넘어서기 때문에 공포영화를 굳이 볼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촉발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8년 이후 박스오피스 50위권 내에 진입한 공포영화가 4편에 불과하다는 건 이를 방증한다.

김예리 문화평론가는 이같은 흐름에 대해, "지난해 사회비판 영화가 많았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 2014년 세월호 참사부터 시작해 지난해 말 세월호 정국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나. 모두 매우 공포스러운 일들이었다. 굳이 공포영화를 찾아볼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했고, 국내에서도 200만명이 넘는 관객을 불러모은 미국 공포영화 '겟 아웃'이 여전히 미국 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을 주제로 삼아 성공을 거뒀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 고인 물은 썩는 법

'여자 귀신'이라는 고정된 문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공포영화의 좁은 스펙트럼이 이 장르의 몰락을 가져왔다는 지적도 있다. 매년 여름이면 TV에서 볼 수 있던 '전설의 고향' 시리즈가 더는 방송되지 않는 것과 같은 흐름으로 볼 수 있는데, 머리를 산발하고 상대를 노려보는 한(恨) 많은 여자 귀신으로는 이제 관객을 사로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사이 '공포'는 다른 장르의 재미를 더하기 위한 양념과 같은 존재가 됐다. 공포영화의 상징과도 같은 소재였던 좀비가 재난 블록버스터 장르 안으로 들어왔고('부산행'), '엑소시스트' 같은 영화에서 봤던 오컬트적 요소가 스릴러와 결합했다('곡성'). 두 남자를 주인공 삼은 전형적인 수사물도 공포영화 소재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성공을 거뒀다('검은 사제들').

황진미 영화평론가는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한국 공포영화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 어떤 새로운 시도가 나오지 않는 이상 공포영화 장르가 관객을 다시 끌어모으기는 힘들 것이고, 다른 장르의 도우미 역할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발칙한 동거'의 자유로운 멤버십 변화, 득일까 실일까

'발칙한 동거-빈방있음'의 자유로운 멤버십 변화는 득일까 실일까.

6일 MBC 예능프로그램 '발칙한 동거-빈방있음' 측은 막강 동거인들의 라인업을 공개했다. 오현경-김구라-지상렬, 산다라박-조세호-피오, 홍진영-아이콘 바비-김진환-모델 진정선이 새로운 집주인과 방주인으로 만나 스웨그와 설렘 넘치는 첫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발칙한 동거'는 지난 설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첫 선을 보였다. 전혀 다른 성향과 개성을 가진 스타들이 실제 자신이 거주하는 집의 빈 방을 다른 스타들에게 세를 주며 벌어지는 일상을 가감 없이 보여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한은정-김구라, 김신영-홍진영-피오, 오세득-우주소녀 등이 한 집에서 생활하며 다양한 케미를 보여줬다.

3부작으로 제작된 '발칙한 동거'는 시청률 8.3%(닐슨코리아 기준)를 기록, 파일럿에서 정규편성되는 기쁨을 안았다. 정규편성에서는 한은정-김구라, 김신영-홍진영-피오, 용감한형제-양세찬-전소민이 첫 멤버로 출연해 어색했던 첫 만남부터 친해지는 과정을 보여줬다.

그러나 이 멤버 구성은 오래 가지 않았다. 지난 4월 새로운 동거인 조합이 합류하게 된 것. 이때 등장한 동거인 조합은 걸스데이 유라-김민종-김구라, 케이윌-한은정, 스티브J&요니P-피오-조세호가 새롭게 호흡을 맞췄다. 이후에도 오연아, 이태환, 김희철, 여자친구 등이 출연해 집주인과 방주인으로 호흡을 맞췄다.

이 때문에 용감한 형제, 전소민, 양세찬, 김신영, 홍진영이 하차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발칙한 동거' 측은 자유로운 멤버십 시스템으로 기존에 사랑 받은 동거인들의 조합도 향후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발칙한 동거' 측은 "새로운 조합의 등장이 더욱 큰 재미와 새로운 케미를 선사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며 "집주인에서 방주인으로 새로운 동거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들이 마주할 '역지사지' 동거 라이프 또한 주목할만한 포인트"라고 덧붙였다.

자유로운 멤버십을 통해 새로운 케미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신선하지만 자주 바뀌는 점에서는 고개가 갸우뚱 할 수 밖에 없다. 어느 정도 호흡을 맞춘다 싶으면 집주인과 방주인을 바꾸고 있기에 아쉬움을 남긴다. 그렇기 때문에 '발칙한 동거'의 자유로운 멤버십 변화는 새로운 케미를 볼 수 있다는 득이 존재하지만 자주 바뀌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몰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실도 존재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제작진은 "출연한 동거인들 모두 역할과 조합의 변화, 발칙한 멤버십 운영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하고 있다. 신선하고 자유로운 포맷에 대해 좋게 생각하고 촬영을 즐기고 있다"며 "자신과 나이, 성격, 직업,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타인과의 동거 경험에 긴장과 반전 요소를 유지하고자 하는 시도들이니 애정 어린 시선으로 기대해달라"고 당부했다.

남궁민·엄지원·유준상…'조작'에는 연기神이 있다

배우 남궁민, 엄지원, 유준상 등 연기파 배우들이 '조작'에 모였다.

SBS 새 월화드라마 '조작'(극본 김현정/연출 이정흠) 측이 남궁민, 엄지원, 유준상, 문성근, 전혜빈에 이어 씬스틸러 최귀화의 합류까지를 알리며 예비 시청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위 배우들의 공통점은 모두 연기력이 탄탄하다는 것. 각양각색 개성과 카리스마를 겸비한 이들의 연기 향연이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조작'이 저널리즘의 실체를 고발한다는 취지의 장르물이라는 점에서 배우들이 제 기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기대감은 더해졌다. '조작'은 두 명의 기자와 한 명의 검사가 변질된 언론에 일격을 가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사회 부조리에 대한 현실을 파헤치는 기자들의 모습이 관전 포인트라는 전언이다.

남궁민은 진지하면서도 열정이 넘치는 한무영 역으로 분해 조작된 진실을 밝히려는 열혈 기자를 연기한다. 한무영 역은 욱하는 성질과 집념으로 물불 가리지 않고 사건을 파헤치며 사건, 사고를 몰고 다닌다고 여러 작품을 통해 연기력을 입증한 그가 가슴에 아픔을 담은 청년 기자를 어떻게 연기할지, SBS '리멤버- 아들의 전쟁', '미녀 공심이', KBS 2TV '김과정'에 이어 연타석 홈런을 터트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유준상은 거대신문사에서 정통 훈련을 받은 노련한 기자로, 후배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선배 이석민 역으로 분한다. SBS 측에 따르면 유준상이 맡은 이석민은 최고의 취재력과 엄격한 언론 윤리를 바탕으로 진실만을 추구하는 비판적인 성격의 캐릭터라고 알려졌다. 다정다감한 '국민 남편' 이미지를 가진 유준상이 시니컬한 매력의 이석민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천우희, 이정현, 김옥빈 등이 '조작'을 출연을 고사하며 난항을 겪었던 여자 주인공 자리에는 엄지원이 자리했다. 이로써 엄지원은 지난 2013년 방송된 SBS '세 번 결혼하는 여자' 이후 약 4년 만에 안방극장에 컴백한다. 엄지원이 연기할 권소라 역은 사법연수원 수석 졸업자이자 인천지검 강력 1부 검사다.

그동안 엄지원은 영화 '미씽: 사라진 여자', '더 폰',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에서 카리스마를 발산하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는 엄지원이 '조작'에서 분할 권소라 캐릭터의 단단함과 맞물릴 것으로 보여 기대를 배가했다.

SBS '자명고' 이후 8년 만에 브라운관에 복귀하는 문성근은 악의 축 구태원 상무로 분해 시청자를 분노케 할 전망이다. 그의 노련한 연기 내공이 '조작'에 가득 담길 것으로 보인다. 외에도 전혜빈, 최귀화와 같은 개성과 배우와 김강현, 오아연, 박성훈 등 신예 스타들도 '조작'에 가담, 극을 가채롭게 만들 예정이다.

이런 배우들의 호연에 힘입어 SBS가 '추적자', '펀치', '피노키오', '귓속말'에 이어 또 다른 웰메이드 사회물 시리즈를 만들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 '조작'은 오는 24일 오후 10시, '엽기적인 그녀' 후속으로 방송된다.

惠山이 바라본 오늘의 운세 2017년 7월 7일 금요일 (음력 5월 14일)

★ 혜산철학연구원 010-2622-2350 ★

▶쥐띠 36년생 재식복을 얻는다 48년생 산행을 삼가라.60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72년생 이거다 싶으면 밀고 나가라.84년생 사소한 감정에 주의하라.

▶소띠 37년생 외출을 삼가라.49년생 노력과 이득이 비례한다.61년생 주위의 도움으로 일이 성사된다.73년생 작은 성과에도 크게 만족해라.85년생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호랑이띠 38년생 화를 다스리고 건강에 유의해야한다.50년생 부부의 정이 더욱 돈독해진다.62년생문서 계약운이 있다.74년생 손재수에 조심해야한다.86년생 꿈을 접지마라.

▶토끼띠 39년생 미련을 버려라.51년생 큰 수확을 이룰 것이다.63년생 계약은 절대 안된다.75년생 희비가 교차하니 무리수는 금물이다.87년생 자리를 넘겨주지 않으려거든 멈추지 마라.

▶용띠 40년생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라.52년생 건강에 더욱 유념하라.64년생 이사에 신중하라.76년생 끝까지 밀고 나가라.88년생 열심히 하면 진로 걱정은 없다.

▶뱀띠 41년생 재물을 잘 관리하라.53년생 새로운 사람을 소개 받는다.65년생 부부관계를 원만히 하라.77년생 기다림을 알아라.89년생 과한 욕심을 버리고 함께 하는 마음을 가져라.

▶말띠 42년생 귀인을 정성껏 맞이하라.54년생 믿음아래 덕을 받는다.66년생 목표를 크게 잡고 멀리보라.78년생 근신하고 자숙할일이 생긴다.90년생 합심하면 이득이 크다.

▶양띠 43년생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라.55년생 건강에 더욱 유념하라.67년생 이사에 신중하라.79년생뜻밖의 행운이 온다. 91년생 열심히 하면 진로 걱정은 없다.

▶원숭이띠 32년생 부드러움을 잃지마라.44년생 믿음을 유지하면 복을 받는다.56년생 뜻밖의 재물복이 있다.68년생 교통사고에 대비하라.80년생 책임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

▶닭띠 33년생 까치가 집 주위를 맴돈다.45년생 금전거래에 주의하라.57년생 누적된 불만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라.69년생 순풍에 돛을 높이 올린다.81년생 욕심을 버려야 뜻을 이룬다.

▶개띠 34년생 외출을 삼가라.46년생 노력과 이득이 비례한다.58년생 주위의 도움으로 일이 성사된다.70년생 작은 성과에도 크게 만족해라.82년생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돼지띠 35년생 귀인을 정성껏 맞이하라.47년생 믿음아래 덕을 받는다.59년생 목표를 크게 잡고 멀리보라.71년생 근신하고 자숙할일이 생긴다.83년생 합심하면 이득이 크다.